

“ 낭비하시는 하나님 ”

■ 이종윤 원로목사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크게 낭비를 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 무모할 정도로 엄청난 낭비를 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 그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오늘의 표현으로는 비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 이방인, 세리들을 만나셨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이런 비종교인들보다 규격품 크리스천들을 선호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한다.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 올 분깃을 내게 달라 한 둘째 아들은 밖으로 내쫓고 매를 쳐야할 놈이다. 당시 유대 규례로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고대한 불효자식이였다. 그 당시 재산이라야 목숨과도 같은 토지였을 텐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 주었다. 그런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최고급 음식상을 차려 놓고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무슨 짓을 했느냐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와 회복의 사랑을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낭비다. 따져 보고 알아보고 고백을 받은 후에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모하게 허비하셨다.

큰아들은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발 잔치에 참여하라고 간청한다. 두 아들은 방법은 달랐어도 그들은 각각 행복을 찾고 성취를 위한 노력은 같았다. 큰아들은 도덕적 삶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겠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면 둘째는 자기 발견의 길을 찾아 행복을 찾겠다는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이들이다. 두 인간형은 서로 비난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 죄인으로 보셨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큰아들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모두가 죄인이다.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큰아들은 그 고만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시켰다. 아버지께 순종하면 재산 전부가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원했다 할 수 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 달성을 사랑했다.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해 보려던 두 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사랑하였다. 참으로 낭비된 사랑을 보여준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내 아들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했다. 만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살찐 송아지도 가락지도 좋은 옷도 아닐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족하다. 둘째 아들은 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고 만아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아버지를 슬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모할 정도의 사랑과 은혜를 낭비하시어 그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윤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교회헌금 전체의 60% 이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남을 위해 교회 밖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낭비를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육함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은 여인의 낭비하던 행실을 칭찬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296호] 2011년 11월 12일 발췌-

<h3>English Worship Service</h3>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Seung Kyung Baec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9:1-7, 12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Right of the Apostle"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h3>우리의 비전 (vision)</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서울교회 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사이사이), 이은준(강해경, 영재성(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욱(백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 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투(노동자), 필리핀, 프르산트, 수레시, 수바식, 이경영, 일로롱, 비사누(뽀도, 보디소프, 린롱, 수린존(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걸(선교)	

	천국시던 양성·판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이웃을 자신처럼 ”

■ 롬 13:8-10
 인간들에게는 잘못된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돈 밖에 모르는 유희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때문에 가정도 이상도 인격도 다 포기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물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이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보다 낫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하므로 삶의 자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1.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야 생활 중에 말을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 시기, 거짓말이나 상처 주는 말은 이웃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여나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 준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피부의 상처는 약 바르면 낫지만 말의 상처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타인을, 공동체의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상처를 가져오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우리는 축복 가득한 생각과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새 힘을 주어야 합니다. 말이 저질이면 인생이 저질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실수 가운데 가장 잘못된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 3:2).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2.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재산 때문에 불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참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나라가 왜 혼란하고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아집니까? 섬기기보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길 때 행복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3.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함'이란 뜻인데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이고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은 원수집니다. 그리고 모두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에게 돌립니다.

맺는 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흐름수록 참 사랑이 식어지고 잘못된 사랑은 더 많아집니다. 성경대로 말세가 되면 모두가 고통의 때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합시다.
 이웃을 겸손히 섬김으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교제를 함께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합시다.

지난 주 안주훈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47:1-2 인 도 자

찬 송 26(14) 다 함 께

기 도 백도환 집사

성 경 사 2:1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께서 진노하시" ... 설 교 자

* 찬 송 274(33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장애순 권사

성 경 빌 3: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가장 고상한 지식"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롬 13:9)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수요 I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모 임
 1. 경기당회 / 7일(수) 수요예배 후 104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박동우(영상의학)입니다.
다음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세번째 세례식인 8월 세례식이 8월18일(주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8월 4일(주)까지
문답총정리는 8월 11일(주) 오후 1시에 105호실에서 있으나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8월 11일(주일) 오후 2시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15. 윤동녕 목사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독문과(B.A., M.A.)
장신대 신대원(M.Div.)
프린스턴신학교 신대원(Th.M.)
드루대학교 신대원(Ph.D.)
서울장신대학교 구약신학 부교수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30명	216명	189명	1,235명	12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7/2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28일	헌 금	38,352,200	
	말씀봉사비		18,010,000
	찬양대사레,운영비		15,328,000
	급 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10,270,000
	교회학교운영비		460,000
	선 교 비		200,000
	구 제 비		400,000
	출 판 비		250,000
	인 건 비		6,122,600
	복리후생비		380,390
	수도광열비		2,200
	차량유지비		142,700
	소모품비		722,900
	환경유지비		61,600
	수선유지비		175,600
	식당운영비		1,160,350
	합 계	38,352,200	86,770,340

2019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강 사
청년1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15(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시 121:1-2)	서명철 목사